

조선시대 능역(陵域)의 공간구성특성

이창환* · 김용기**

* 상지영서대학 환경조경과 ·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Organization of the Royal Tomb Area in Chosun Dynasty

Lee, Chang-Hwan* · Kim, Yong-Gi**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angji Youngseo College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 Kyun Kwa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norms and principles reflected in the spatial organization of royal tombs in the Chosun Dynasty through the modern 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oriental philosophy theory.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royal tomb sites including Jeshil(Shrine), Hongjunmun, tomb mound, ponds, and attached buildings employing an analysis of the spatial formation and landscape. This study covered 36 tombs of kings and queens in the Chosun Dynasty.

The entire layout of royal tombs, including annexed buildings, was informal in many cases. This was due to following the natural contour rather than adhering to certain philosophical principles.

The royal tomb site is divided into three zones. Jeshil and pond constitute a space for living people, visitors. Secondly, the semi-sacred space includes the space from Hongjunmun to the entrance to the Chungjakak. The last space is for the dead, from the back of Chungjakak to tomb mound. This is in line with the layout of palaces of the Chosun Dynasty which is characterized by "three gates and three zones": outer yard - court yard - back yard

The size of the space for holding memorial ceremonies, from Hongjunmun to the Chungjakak entrance, was set at 90m until the early Chosun Dynasty. Since that time the distance varied according to the land topography due to the influence of metaphysics.

It can be summarized that the spatial organization of royal tombs in the Chosun Dynasty is based on the Confucianism value, the natural contour of the site, and inner spiritual value.

Key Words : Royal Tomb, Spatial Organization, Confucianism

I. 서론

능역¹⁾은 임금과 왕비의 무덤과 주위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능역에 대한 공간구성은 한나라의 공간구성방식의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온화한 기후와 쾌적한 공간에서 살기 위해 산수가 좋은 자리에 터를 잡아 살아가며, 사후에도 영면하기 위해 길지를 찾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한 나라의 통치자였던 왕과妃 무덤의 경우 더욱 그 제도와 정치·사상적 내용을 고려하여 조영되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집트의 영혼불멸설은 분묘건축(Mastaba, Pyramid, Sphinx)과 묘지정원(Cemetery garden)을 (윤국병, 1990: 28-60), 인도의 이슬람문화와 사상은 타지마할(Taj Mahal)묘묘(墓廟) 등을(정영선, 1989: 87) 조영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특히 권력계층의 경우 현세(現世)보다는 내세(來世)를 더욱 중히 여겼으며, 조상에 대한 숭배사상이 다른 어느 민족보다 강했던 우리민족의 경우 능역 조영에 대하여 중요시 여겼음이 틀림없다.

이제까지 우리 나라의 능원(陵園)을 포함한 능역의 연구는 대부분 민족학적, 인류학적, 종교학적, 제도적, 미술·의상사적 등의 분야에서 인문과학적 및 미술사적으로 취급되어 왔고, 능역에 관한 공간사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능역은 사자(死者)의 공간으로서 인류 역사상 신성시하고 중히 여겨 잘 가꾸어 온 점으로 미루어 녹지 공간사의 공간론적 틀을 타득하는 기본 틀이 된다. 본 논문과 연관지어 우리 나라 능역(묘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村山智順(1931), 은광준(1985), 목을수(1992) 등은 일반적 연구를 하였고, 최창조(1978), 박재길(1982), 박용숙(1987) 등은 조선시대 능역 원형적 공간의 기본적 특성이 형태적·상징적 그리고 의식적 측면에서 분묘의 입지와 축으로서의 능역 공간의 상징성을 분석하고 음양오행에 의한 능구역과 정자각 구역의 조성을 파악하고 있으나, 단위 능역별 해석에 의해서 상징적 서술에 불과하며, 실측에 의한 해석은 못하고 있다. 김영빈(1991)은 풍수사상적 조성기법을 조선시대의 健元陵과 洪·裕陵 그리고 英陵과 靖陵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고 있으나, 이것도 村山智順의 「墓地 風水」를 참고로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어 연구에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이

영(1992)은 조선시대 왕릉 능역의 건축과 그 배치 형식을 종교적 사상적 배경 분석에 의하여, 왕릉건축(왕궁, 문묘, 종묘, 서원, 향교건축과 비교)의 기하학적인 질서인 축(axis)에 따르는 정연한 배치에 준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능역내부공간의 건축적 배치에만 치우쳐, 능역 조성의 기본 틀이 되었을 입지, 공간구성적 그리고 경관구성의 구조론적·상징론적 측면은 다루지 않고 있다. 여기서 그는 조선시대 왕릉은 건물만 아니라 도시와 조경 등 모든 건축 환경을 망라하는 총체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능역 조영에 나타난 공간구성의 특성 및 전통사상과 관련한 개념의 형상화 및 구상화를 통하여 공간구성의 기준이나 규칙등을 알아내어 한국적 독특한 능역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능역 조영시 역사적(시대별)·사상적·정치적 배경등 능역 공간구성의 이론적 배경을 조사하고 체계를 확인·정리하여 변천 사항을 조사하여 물리환경적 공간분석 및 해석을 통하여 능역 공간구성의 변화 과정을 규명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조선시대 왕릉의 형식에 따른 태조 건원릉(健元陵)으로부터 25대 철종과 철인왕후의 능인 예릉(睿陵)까지(1392-1878) 36기(基)릉²⁾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조사 방법은 문헌조사와 현지 실측조사로 구분되며, 문헌조사는 관련된 고증 자료와 역사 사료를 통하여 사상적·역사적 배경 과 이론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다.

현지조사는 방위계, 광파측량기(Nikon Totalstation DTM-420 Series) 등으로 실측을 통하여 PC用の Transit(TM, Nikon, 199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량기로부터 Download받아 도면 작업함으로써 정밀도를 찾으려 하였다. 현지 조사는 1997년 9월부터 1998년 8월까지 능역 휴무일(월요일)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정밀실측 및 확인작업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능역의 조성 배경이 되는 사상적·정치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문헌 및 사료를 통하여 분석하

고, 물리 환경적 공간분석은 도면분석및 측량과 사진촬영 등 실사를 통하여 Excel97(Microsoft, 1997)과 SPSS Ver.5.0(SPSS Institute Inc., 19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능원 공간내의 동선, 공간구성, 공간의 위계 등에 대하여 계량화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한 의미의 해석은 문헌분석과 물리적 환경구성형식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여 시대적 정치적 사상적 배경이 공간구성에 어떻게 구분되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났는지를 파악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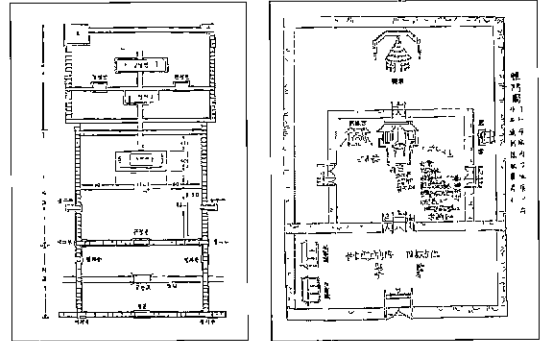
1. 능역의 공간구성

1) 능역의 공간구분

능역은 능묘를 사후의 왕이나 왕비를 위한 궁전건축 계획의 개념에서 해석하여 축조하고(그림 1 참조).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인 유교와 성리학의 영향을 주로 하여 동양의 자연관인 풍수지리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 삼문삼조(三門三朝), 전조후침(前朝後廢), 풍수적 조성원리에 따라 조성된다(이영, 1992: 146-170). 따라서 능역 공간구성은 일정한 규칙성이 있으며, 이것을 찾기 위해 능원을 삼공간의 구성과 공간별 특성파악을 위해 실측분석 하였다.

또한 능역의 중심공간인 능원 공간은 중심(center)적인 상징적 공간 측면에서 세계축(axis mundi)이 관통하는 지점으로서 이것에 의하여 지상 세계의 인간은 천상과 지하의 세계와의 연결이 가능하며, 세계축을 상징하는 중심의 주변으로 인간은 수평적인 사방위(四方位)의 방위개념을 심리적으로 가진다(박재길, 1982 : 48). 여기서 수직방향은 초현실적 곳으로의 지향을 의미하고 수평적인 방향은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세계를 의미하므로 4개의 기본적인 수평방향(東西南北)은 4개의 기본적인 영역(quater domain)을 형성한다. 이는 성과 속의 위계적 가치체계를 반영하기도 한다(Christian Norberg-Schulz, 1982. 김광현역; 박찬용과 김한배, 1987: 104). 따라서 능원 공간의 위계성 공간구분에서 방위적 개념과 성과 속의 영역성을 파악하고 공간구분을 할 수 있다.

동선적으로 능원의 공간구분은 정자각을 중심으로



a 경복궁배치추정도 b' 친존의시대지도

그림1. 경복궁의 배치추정과 遷尊儀時配置圖「惟門圖」 자료. (a' 진상현(1995), 조선시대 궁궐조경양식연구, 시립대 박사 논문 p.101. b' 景樓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서각 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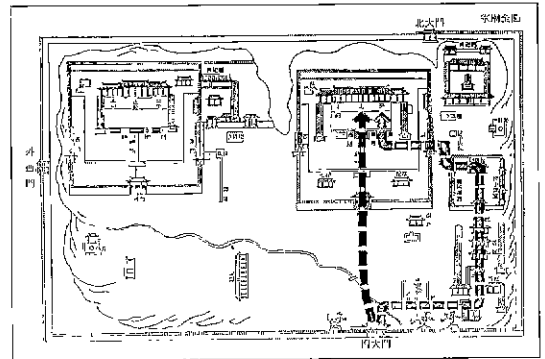


그림2. 종묘전도(宗廟全圖)와 영녕전전도(永寧殿全圖) 진입과정개념도

자료 『宗廟前執凡例』天券, 肅宗丙戌(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의 자료를 필자가 재작성 - 神路, □ □ (御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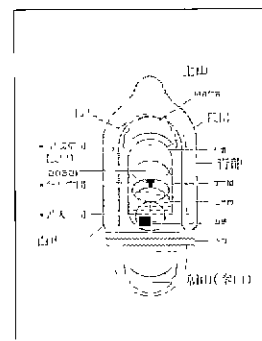


그림3. 능역과 능원의 공간구성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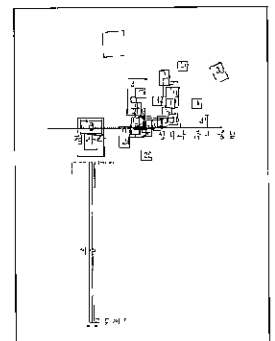


그림4. 조선시대 능원 비각의 배치현황 *숫자는 왕릉조영 순이다.

현관의 위치와 제례행위가 홍전문(紅箭門) 입구에서 시작하여 정자각 동계(東階)를 거쳐 정자각 서편의 예감(瘞堦)에서 끝남을 볼 때(各種陵誌와 宗廟全圖)(그림 2 참조) 정자각을 중심으로 공간이 구분될 것이라는 추측하여 정자각을 중심으로 실측결과 성역(聖域), 제향(祭享) 공간구분의 기준점으로 제례를 위한 정자각 들보를 중심으로 능상과 능하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그림 4 참조).

사자(死者)와 생자(生者) 만남의 공간인 정자각을 중심으로 성과 속의 합치공간을 정자각내 진설대를 중심으로 측량한 결과 진설대위의 들보를 중심으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설분류상 능침 공간(성역)의 주요시설인 비각의 배치와 본 측량결과 정자각 들보를 경계로 하여 능상에 배치됨을 알 수 있었다(그림 4 참조).

능원공간의 의미적 공간구성을 구분하여 보면, 穴이 있는 봉분지역은 혼백이 제례시 상승하고 하강하는 상징적인 신의 공간으로 성역공간(능상)이라 할 수 있으며 성격분류상 성의 공간이라 해석 할 수 있다. 단을 아래로 하여 정자각을 중심으로 홍전문과 정자각 들보까지는 제례를 위한 제향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성격분류상 반속세의 공간으로 해석된다. 홍전문의 밖 제실, 외홍전문, 지당의 공간은 진입공간이며 속세의 공간으로 해석 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성역공간은 지형적 특성상 수직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상(능상)의 성에 속하며 하(능하)의 제향공간은 반속에 속하고, 진입공간은 능역의 진입부에 해당하는 속의 공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된다(표 1 참조).

표 1 능원의 공간구분표

구분	능역의 주요시설	공간의 흐름	종묘의 주요시설
聖域空間	封墳, 文武人石, 石物, 神閣, 瘞堦(望燎位, 燒錢臺), 山神石,	↑	正殿, 瘞堦
祭享空間	丁字閣, 御道, 香道, 守僕房, 수라방	┌	神路, 配享殿, 七祀殿
進入空間	外紅箭門, 池塘, 齋室, 禁川橋, 參拜路	Z	池塘, 香廳, 執事廳, 御齋室, 典祀廳

따라서 능원의 조영방법은 진입공간→제향공간→성역 공간으로 구분되는 능원의 공간구성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공간의 흐름에 따라 성수리움의 깊이를 달리하여 공간의 위계성을 달리하는 조선시대 유교의 봉건사회주의 영향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공간의 분할은 위계성과 폐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역공간(순수 신의 공간, 정자각의 중간 들보 윗쪽) → 제향공간(신과 참배객의 만남의 공간, 합치의 공간, 참배의 공간, 홍전문에서 정자각 들보까지, 반속세공간) → 진입공간(속세공간, 홍전문과 제실 사이 그리고 외홍전문 사이)으로 나누어 해석되어진다(그림 5 참조).

성역공간이며 사자의 공간과 제향공간을 잇는 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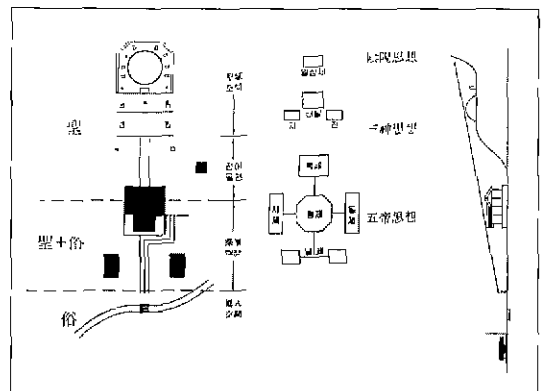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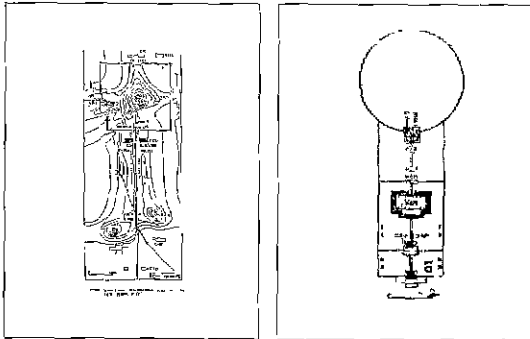


그림5 능원의 공간구성 평면도(좌) 시상체계도(中)와 단면도(우)

자료: 이영(1992), 조선시대왕릉능역의 건축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 86제인용 작성)

공간에는 정자각 들보 윗면 오른쪽에는 비각과 산신석이 왼편에는 망묘위 또는 예감이 입지 한다. 성역공간의 중심인 능침공간은 상계, 중계, 하계로 나누어 삼신오제(三神五帝)의 삼신에 의하여 삼공간으로 구분된다.

위의 내용에 의하여 능역 공간의 구성은 궁궐의 조성방식인 삼문삼조와 전조후침의 제도를 따르고 있다. 공간구성의 흐름은 진입의 공간(속세의 공간; 외홍전문, 제실, 지당, 금천교) → 제향의 공간(성과 속의 만남의 공간) → 성역공간으로의 흐름 체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이는 조선시대의 유교와 봉건신분제도에 따라 공간별 위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a' 당 건물

b' 명 건물

그림6. 당의 乾陵(좌)과 명의 長陵(우) 배치도
자료: 佐藤昌, 1989, 중국묘지사, (사)일본공원녹지협회, 筆者再作成

능원 공간내의 시설물배치는 조선시대의 방위개념인 일정한 서열체계 즉 차서체계가 존재하였는데, 이것은 유교의 예에 따라 유교의식을 행할 때 참배자의 위치는 차서체계의 원리에 의하여 위치에 맞도록 배열되어 있다(홍승재, 1992: 36-42). 위에서 종묘전도(宗廟全圖)와 영녕전전도(永寧殿全圖)에서 판위와 참도는 동남에서 시작하여 정전의 북서측에는 예(埗)와 감(坎)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2 참조). 능역에서도 종묘의 배치방법과 동일한 배치방법을 하고 있어 조선시대의 제례가 동에서 시작하여 서에서 끝남을 확인시켜주며 동을 양으로 서를 음으로 보는 음양사상과 방위차서체계등에 유교의 봉건제도에 의한 것으로도 사료된다.

이는 궁궐조영시 정궁과 이궁의 구성 차이에도 불구하고 내용적 측면에서 관념적 내용을 통하여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음양론에 기초한 대칭적 구성과 오

행론에 근거한 오행적 궁궐구성, 이러한 음양오행의 구성은 합일적 공간구성이었다(김영모와 최기수, 1998: 155)라는 궁궐조성과 같은 사상적 의미를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능원은 풍수이론에 의하여 조성되며, 능원은 조선시대의 국교인 유교와 봉건사회 신분제도의 차서체계와 음양사상, 그리고 삼신오제의 원리에 따라 능원의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었다. 기본적인 능원의 영역성(quater domain)에 따라 수평적 영역과 성과 속을 나타내는 수직적 영역으로 공간구분이 되어 있다. 즉 방위의 차서체계에 따라 능역의 제일상위 개념인 봉분을 북좌남향하여 입지하며, 다음은 정자각이 단을 달리 하여 북좌 남향하여 있다. 비각과 수복방이 동좌서향하며 수라방과 망료위가 가장 낮은 서좌동향하고 있다.

제례의 시작공간인 판위가 동남향에 있으며, 끝나는 시설인 예감이 북서측(壬地)에 있다. 즉 제의식이 차서체계의 원리에 따라 동남에서 시작하여 북서에서 끝나는 것이 여기서 입증된다. 이는 또한 능원이 성(陽)과 속(陰)의 이원적구조와 삼신오제의 상징적 원형(archetype of binary)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능원의 공간구분

(1) 능원의 공간구분

능원의 공간구분을 앞에서 나눈 삼공간으로 나누어 규모의 규칙성이 있나를 알아 본 결과 외홍전문에서 홍전문까지의 진입공간(속세의 공간)은 풍수지리의 원리와 자연지형에 따라 일정한 규칙성을 찾을 수 없었다. 홍전문부터 정자각 전설대(정자각들보)까지의 제향공간에는 제례의 주공간으로 제향시설인 정자각을 중심으로 영혼(神)과 참배자(제왕)와의 회합을 위해 성역화, 엄숙성을 위하여 철저한 그 질서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전설대로부터 홍전문까지는 일정하게 300척(90미터 내외)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8 참조). 능원의 주공간인 성역공간은 봉분을 중심으로 사자를 위한 시설의 배치를 하고 있으며, 높이를 달리하여 능원의 수직적 구분을 달리하고 있다. 정자각부터 봉분까지는 거리와 형태가 일정치 않게 나타나며 높이도 차이를 두어 성과 속의 공간을 확실히 구분하고 있었다(그림 5 참조).

참배공간(祭享空間) 규모는 전시대에 걸쳐 300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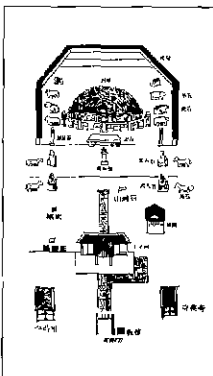


그림7. 조선시대 초기 능원의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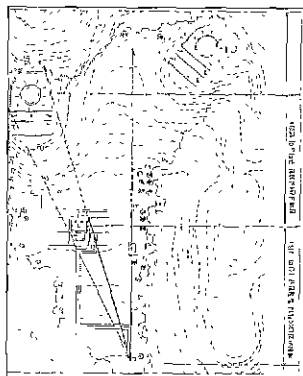


그림8. 능원의 공간규모 모식도 (현릉)

(90m)의 규모를 많이 발견할 수 있어 일정한 조영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시대별로는 조선시대초기의 顯陵(그림 8 참조)부터 光陵, 英陵, 昌陵에서 300척(직선거리)을 지키고 있으며 15세기는 평균87.55미터로 조사되었다. 16세기에는 禧陵, 靖陵, 泰陵, 康陵등에서 300척(약90미터)의 조영 규칙성을 지키고 있으나 평균 92.43미터로 조사되었다. 이후 17세기 이후에는 明陵, 懿陵에서 300척의 규모로 조영되어 있으나 평균규모 82.33미터 이하의 적은 규모로 조영되며 90미터의 조영기준이 무시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표 2; 그림 9; 그림 10 참조). 성역공간과 제향공간과의 규모에 대한 점산도는 그림 10과 같다.

위와 같은 능원공간 제향공간에 대한 규모의 변화는

표2. 능역내부공간의 구성규모(1) 단위: m

능명	진입공간	성역공간	제향공간
健元陵(1408)	규모가 일정치 않음	136	83
獻陵(1420)	"	126	67
顯陵(1452)	"	91	90
德宗敬陵(1457)	"	110	95
恭陵(1462)	"	80	80
光陵(1468)	"	214	90
光陵 비 정희왕후(1483)	"	185	90
英陵(1469)	"	73	90
昌陵(1470)	"	90	90
昌陵 비 안순왕후(1499)	"	80	90
順陵(1474)	"	76	93
宣陵(1495)	"	90	83
敬陵 소혜왕후(1504)	"	90	95
顯陵 비 권씨릉(1531)	"	150	99
禧陵(1537)	"	90	90
孝陵(1545)	"	69	93
中宗靖陵(1562)	"	85	90
泰陵(1565)	"	120	90
明宗康陵(1567)	"	65	90
穆陵 비 의인왕후(1600)	"	110	95
穆陵(1630)	"	53	95
穆陵계비 인목왕후(1632)	"	65	95
元宗章陵(1627)	"	75	93
太祖繼妃貞陵(1669)	"	95	71
孝宗寧陵(1673)	"	157	72
崇陵(1674) 비(1684)	"	82	97
翼陵(1681)	"	61	77
徽陵(1688)	"	37	79
莊陵(1689)	"	60	66
思陵(1698)	"	90	55
明陵肅宗(1720)	"	57	90
憲陵(1718)	"	74	64
景宗懿陵(1724)	"	91	90
眞宗水陵(1729)	"	54	56
仁祖長陵(1731)	"	63	96
溫陵(1739)	"	78	56
弘陵(1757)	"	54	65
元陵(1776)	"	60	87
隆陵(1789)	"	75	86
健陵(1821)	"	83	63
景陵(1849)	"	55	65
綏陵(1855)	"	61	68
仁陵(1856)	"	111	70
睿陵(1864)	"	82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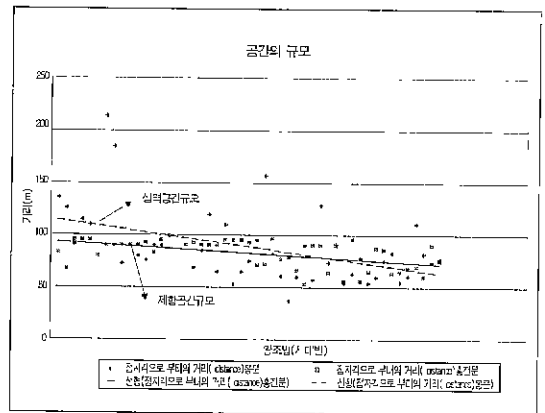


그림9. 능상(성역공간)과 능하(제향공간)의 공간규모

조선시대초기에는 유교적논리와 국조오례의 원리에 따라 전체적으로 300척(90미터 내외) 기준으로 규칙적인 기준을 지키고 있으나 조선중기 이후에는 명의 멸망과 병자호란의 사회적 혼란과 실사구시의 원리에 따라 성리학이 정립되면서 자연지형에 맞게 제향공간의 규모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성역공간인 정자각부터 봉분까지의 규모는 초기에는 신도(神道)와 신도비의 설치에 따라 성역의 공간 규모는 크게 나타나지만 顯陵이후 신도비와 신도가 점차 후기로 올 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증기이후에는 제향공간보다 규모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시대별로는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성역공간은 점차 좁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9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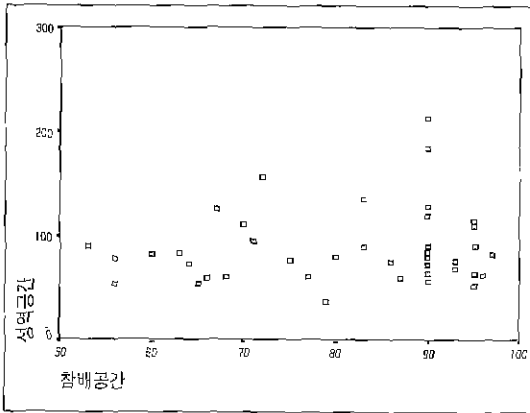


그림10 능역공간과 제함공간의 점산도 (단위 : m)

(2) 진입공간의 구성과 특성

본 조사에서 나타난 능역을 접근하는 능역 입구의 형태는 그 모습이 보전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어려우나 현존하는 능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지그재그의 곡선형을 이루고 있었다(그림 10: 그림 11 참조).

진입공간(참배로)은 의흥전문→ 재실→ 금천교→ 지당→ 흥전문으로 이어지는 공간이다. 의흥전문은 능역의 외청통 외백호가 맞닿는 입구에 입지하며 중국에서는 능역앞 동서 두봉우리를 필문과도 비교하고 있다(당의 乾陵, 그림 6 참조). 중국에서는 이 두 봉우리를 궁궐의 정문과도 비교하고 있다(佐藤昌, 1987: 93). 능혈(陵穴)로 진입하는 동선을 따라 개천이 평행하여 명당수가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명당수가 함유하는 지점에서 금천교를 두어 능역의 성스러움을 구분 지으며 흥전문으로 진입하고 있다. 『昌陵誌』와 『昌陵誌』 圖局編에 따르면 능역에의 접근은 능역의 좌측능선(白虎) 뒤로 접근하여 금천교를 지나 진입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그림 11 참조).

숙종42년1월10일(신축)에 “예조에서 明陵으로 가는 옛길은 대봉현(大峰峴)을 거쳐서 조금 돌기 때문에 옮겨서 새 길을 열어 이혈현(襄穴峴)을 거치게 하였는데, 땅이 높고 험준하여 여러 陁이 굽어보이므로... 예조에서 두 길을 모두 막아 행인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 뒤로는 향축의 왕래이더라도 昌陵의 큰길로 갈 것.”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능역을 성역화하여 외부에서 진입시 보이지 않도록하여 차폐성을 강조하여 성역의 성스러움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徐有

集(1764~1845)의 『林園十六志』에서 “명당을 향하여 들어오는 도로는 지현(之玄) 형태의 곡선이여야 하며, 그것이 소로든 산맥이던 직사(直射)하여 들어오는 것은 총파라 하여 꺼리는 것이니 이런 것은 피해야 한다.” 는 내용과 관련성이 있으며, 능역 입구에서 참배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길은 기분 좋게 구불거리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이상 내용에서 능원 진입공간의 공간구성은 능원 참배시 직선적으로 능역이 보이는 것은 기피하고 『之』, 『玄』의 곡선형태를 이루어 능역에 진입하게 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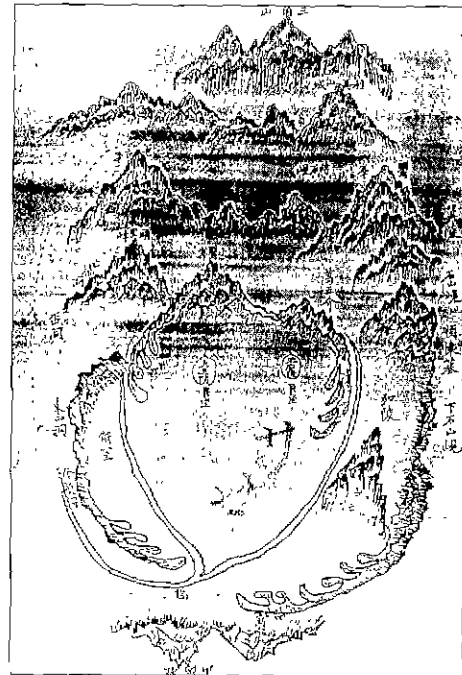


그림11. 능원의 참배로 자료. 昌陵誌(한국정신문화연구원규장각소장)
... 표시는 참배로이다. 능혈이 보이지 않게 뒤편으로 접근한다.

서 능역의 신성함과 엄숙함을 강조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진입공간의 규모는 속세의 공간으로 일정한 규칙적 규모를 갖지 않고 자연지형에 따라 위치하므로 그 크기도 일정치 않았다.

이와 같이 진입공간의 차폐성과 곡선적인 진입은 유교의 영향에 의한 봉건사회주의 영향과 풍수사상에 따르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제함공간의 구성과 특성



그림12 건릉의 진입공간의 참배로

제향공간은 흥전문부터 정자각 들보까지의 공간으로 참배의 중심공간이며, 생자와 사자의 만남 공간인 반속세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제향공간은 공간의 중심시설인 참도를 중심으로 구성요소들이 좌우대칭하여 배치된다. 참도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3칸(間) 규모의 수복방이 우측에는 같은 규모의 수라방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5; 그림 7 참조).

제향공간의 규모는 흥전문에서 정자각 중간들보까지를 말하며 300척(90미터 내외)를 기준으로 규칙성을 보이고 있었다(그림 8; 그림 1 참조).

이공간에는 정자각과 흥전문을 잇는 선을 따라 참배로가 2~3단으로 구분 지어 배치되어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좌측(東側)에 수복방 우측(西側)에 수라방이 배치되어 있다. 참도의 입구에는 제의 시작을 알리는 관위가 놓여 있다.

이는 종묘의 경우 신로를 정전의 앞에 두어 신로(神路)와 어로(御路)를 구분하여 배치한 것과 차이를 보이며(그림 2 참조), 남신문으로는 혼백(魂魄)이 출입하는 곳이므로 사람은 다닐 수 없는 것은 능원의 흥전문과 개념이 같다. 신로가 조선시대 초기에는 정자각 뒤편으로 전이공간에(健元陵, 獻陵) 나타나는 것은 능상(성역공간) 부분에 신도비(건원릉, 현릉 등 초기의 陵에서 나타남)를 설치하기 위하여 넓은 면적을 차지한 것으로 사료되나 능침에서의 혼백의 길을 표현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능침공간(전이공간포함)인 능역의 정자각(정전) 뒷편에 신로가 나타나며, 어로는 정자각 앞으로 배치되었다가(健元陵, 獻陵), 문종의 顯陵이후 정자각 뒷편의 신로는 점차 줄어들어 앞의 쌍로

(雙路) 중 좌도를 향도(香道)로 우도를 어도(御道)로 구분하고 있으며(光陵, 昌陵, 宣陵, 明陵), 이후 정자각 뒤의 신도는 점차 줄어들다가(현재는 敬陵, 英陵, 宣陵, 孝陵, 靖陵, 泰陵, 穆陵, 康陵에서 확인 가능함) 숙종조의 明陵이후에는 정자각 뒤의 신도는 없어지고 신교 또는 신계으로 나타났다.

참도는 정자각에 이르러 우측(東側)으로 꺾여 지는데 이는 중국의 황묘제(明太祖 朱元璋의 孝陵)에서 신도가 평탄하고 직선이 아닌 것은 첫째 신도가 길게 보이기 위해, 둘째 한번에 보이지 않아서(현동수, 1997: 168) 신비감을 높이기 위하여 꺾었던 것(최승창, 1989: 138)과 같이 조선시대 능역에서도 참도를 동쪽으로 꺾음은 첫째 '동에서의 시작하여 서에서 끝난다'는 상징적 의미와 둘째 참도의 길이를 길게 보이기 위해 세제, 참배시 능상(성역공간)에 대한 시각적인 폐쇄효과로 신비성과 위엄성, 심미성, 권위성, 신성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종묘의 제례가 등문을 통하여 환관(왕과 왕세자, 영의정 등)이 출입하며 서문은 악공들이 출입한다."(김동욱, 1997: 34-47)는 내용과 동선체계가 절전의 흐름은 궁궐의 심미성과 폐쇄성 권위성을 찾아보기 위함으로 해석되며, 왕릉의 능원에서 참배로가 직선으로 진입보다는 곡선으로 가려져 있음은 능원 공간의 심미성과 권위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IV. 결론

본 논문은 조선시대 전통능원공간의 공간구성중 진입공간, 제향공간, 성역공간으로 나누어 36기의 왕릉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문헌조사와 현지정밀 측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동안의 연구가 정밀 조사가 아닌 사진분석 및 단순한 답사형 논문이었던 한계성에서 벗어나 공간의 정밀측량과 실측을 통한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연구의 정밀도를 높여야 하였다. 본 논문의 완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의 결과와 성과를 고찰해 볼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능원의 공간구성은 사후의 왕이나 왕비를 위한 궁전건축계획의 개념에서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인 유교와 성리학의 영향을 주로하여 동양의 자연관인 풍수지리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 삼문삼조, 전조후침, 풍

수적 조성원리에 따라 조성되었다.

공간구분은 시계영역을 포괄하는 능역공간과 능역의 내부공간을 구분하는 능원공간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능원은 봉분을 중심으로 한 능침공간(성역의 공간), 정자각을 중심으로 한 제향의 공간(반성역공간), 제례의 준비를 위한 진입공간(속세공간) 등 3공간으로 구분된다. 진입공간(참배)은 속세의 공간으로 외홍전문, 제실, 연못(池塘), 금천교 등으로 구성되어, 제향의 공간은 제례를 위하여 정자각을 중심으로 수복방, 수라방, 참도 등이, 다음은 정자각 뒷편 들보에서 봉분까지의 성역공간으로 사자를 위한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다.

능원내에서의 공간의 주축은 유교의 성리학의 위계성에 따라 능침→장명동→정자각→홍전문을 잇는 선으로 직선축을 기본 원형으로 하고 있으며, 홍전문앞의 금천교와 제실을 잇는 참배도는 풍수사상에서 지적되는 능원앞의 진입공간은 ‘之’, ‘亥’의 형태가 좋아하여 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 많았다.

능원의 공간적 규모에서 제향공간의 규모는 조선시대 전·중기에는 홍전문에서 정자각 들보까지 300척(90미터 내외)을 기준으로 하여 지키고 있으나, 이후에는(寧陵)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성리학의 영향으로 자연의 지세에 따라 규칙을 달리하고 있다. 진입, 성역의 공간의 규모는 거리와 형태가 일정치 않게 차이를 두고 있으나, 시대별로는 점차 규모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제향공간의 참도는 정자각에 이르러 우측(東側)으로 꺾여 지는데 이는 첫째 제례가 동에서의 시작하여 서에서 끝난다는 상징적 의미와 둘째 신도가 길게 보이기 위해, 신비감을 높이기 위하여 꺾였으며, 세째 참배시 능상(성역공간)에 대한 시각적인 폐쇄효과로 신비성과 위엄성, 심미성, 권위성, 신성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주1. 능의 부지에 대한 용어는 陵園, 陵城, 陵苑 등의 용어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선행연구에서는 陵城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그 용어가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王과 王妃의 무덤을 陵으로 王世子와 世子嬪의 무덤을 園이라하고, 大君이나 王子등의 무덤을 墓라 쓰고 있다(최창조등, 1989) 中國(多彩?, 1986, 商傳, 1999)과 日本(佐藤昌, 1989)에서는 陵園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풍수에서 말하는 內明堂의 영역을 陵園이라 정의하고, 外明堂(즉 視界의 영역)을 陵城이라 정의하여 표현한다(그림 3 참조)

주2. 조선시대의 연산군묘, 광해군묘는 사대부 묘제를 따라 제외하였으며, 洪裕陵은 왕계의 능제를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주3 編者未詳(寫年未詳), 『昌陵誌』, 圖
주4 成宗(朝鮮王, 1450~1469)命編, 寫本. [1913]頃寫, 『昌陵誌』圖面

인용문헌

1. 景陵山陵都路儀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2. 景陵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3. 김동욱(1997) 종교사적 서물 대원사.
4. 김영모, 최기수(1998) 조선시대 궁궐공간의 개념적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5(4), 141-157
5. 김영민(1991-1994) 수사상에서 본 朝鮮王陵園墓 조성기법에 관한 연구(상,중,하), 효성여대연구논문집
6. 목용수(1992) 高麗·朝鮮 陵誌, 文成堂
7. 박용숙(1987) 한국의 미술론, -志社.
8. 박재길(1982) 傳統능역空間 構成의 原形 空間的 特性에 관한 연구 서울대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박찬용, 김한배(1989) 朝鮮時代邑城 定住地의 景觀구성 연구, 한국조경학회지12(1) 104.
10. 商傳(1999) 明·三陵, 北京美術攝影出版社: 3.
11. 成宗(朝鮮王, 1450~1469)命編, 寫本. [1913]頃寫, 『昌陵誌』圖面,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12. 世宗實錄, 庚寅年, 3冊225面,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13. 永寧殿全圖,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14. 윤국병(1990) 조경사 일조각
15. 은광준(1985) 서울六百年史(서울의 陵墓) 삼성출판사 pp.787-862
16. 이영(1992) 朝鮮時代 王陵陵域의 建築과 配置形式 研究 서울대 建築學科博士論文
17. 정영선(1989) 서양조경사 명보문화사. pp 28-60.
18. 朝鮮王朝各朝陵誌CD판 (한국소프트웨어, 1997, 세종실록, 속종실록)
19. 宗廟全圖,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20. 村山智順 著(1931) 崔吉城 譯(1990) 朝鮮의 風水 서울·民音社.
21. 최창조(1988) 陰宅 風水에 관한 地理學的 解釋 地理論叢 12호.
22. 최결수, 최창조(1989) “風水理論과 王陵風水”,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編)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墓地風水編, pp 3-69.
23. 編者未詳(寫年未詳), 『昌陵誌』, 圖,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24. 한동수(1997) 중국고건축·원림감상입문 世進社. p 168.
25. 홍승재(1992)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체제적 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사학위논문. pp. 36-42
26. 彩() 著(1986) 乾陵誌, 中國出版公司 7.
27. 佐藤昌(1989) 中國墓地史(社) 日本公園綠地協會.